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 시정질문 서면질문서

(이상숙 의원)

안 산 시 의 회

## [신안산선 착공]

마지막으로 ‘신 안산 전철 착공’ 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 안산 전철 착공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 안산 전철과 관련되어 그동안 겪어왔던 우여곡절들을 되돌아 볼 때, 마냥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도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 에 의해 수립된 신안산전철의 노선은 ‘청량리 ~ 여의도 ~ 광명 ~ 수암 ~ 안산 한대앞역’ 까지 연결된 노선이었으나,

2003년, 기획예산처의 예비비 타당성 조사에서 기존 노선이 폐지되고, ‘선부동에서 시흥시를 거쳐 여의도로 연결되는 노선’ 으로 변경되며 안산시와 시흥시 간의 지역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과 2009년, 자칫 시흥시로 빼앗길 뻔한 신 안산 전철 노선을 당시의 홍장표 등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뚝 결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11월 국토부에 의해 ‘여의도에서 월피동을 거쳐 중앙역으로 연결되는 신 안산 전철 노선을 ‘2013년 착공하여 2017년 개통’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0년 12월에는 이보다 1년 늦어진 ‘2013년 착공, 2018년 개통’ 안이 확정 발표되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는 개통되어야 할 신 안산 전철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은 2015년 신 안산 전철이 착공될 예정이라는 의정보고 문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으나,

국토 교통부는 2010년 발표했던 계획보다 5년이나 늦어진 ‘2017년 착공, 2023년에 개통’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동안 국토부가 발표했던 신 안산 전철 사업계획을 돌아볼 때, 이것마저도 얼마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공사기간만 해도 '2013년 착공, 2017년 개통부터 '2018년 개통, '2017년 착공에서 2023년 개통' 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왔습니까?

사업방식도 국가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된다면 다행이지만,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얼마나 미뤄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종길 시장님!

신 안산 전철의 개통이 연기될 때마다, 안산시민들이 느꼈어야 했던 상실감과 실망의 크기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신 안산 전철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 위해 안산시는 신 안산 전철이 정부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바라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과 중앙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 책정 과정에서 신 안산 전철이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안산시와 시의회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국회와 국토 교통부에 '신 안산선의 조기착공과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님께서서는 향후 신 안산 전철의 조기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9.23.(수)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 서면답변 ]**

< 서면 질문 : 1의원 1건 >

【 서 면 답 변 】

○ 이상숙 의원 : 1건



**안 산 시**

-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신안산선 조기 착공과 조기 개통 요구 건의안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조기개통 요구 건의안 제출(국토교통부)

- 우선, 이상숙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도 하루빨리 착공 및 개통을 바라는 입장에 대해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17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사업추진방식 및 추진 일정에 대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건의안 제출 보다는 현재의 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파악하고 지연될 경우 모두 힘을 합쳐 신안산선 조기 착공 및 개통 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오랫동안 기다린 국책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

통시 까지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이 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